

재미교포 기혼자들의 결혼만족도 요인의 중다회귀분석.

박 태 영 (숭실대 강사)

1. 서 론

재미 교포 부부들은 언어장벽, 문화적인 갈등, 신분 불일치,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역할 구분으로 인하여 미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들이 많은 심리 사회적 문제들과 결혼생활에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미 교포 기혼자들의 결혼 만족을 살펴보는 연구로서 교육 배경, 거주년도, 수입, 신분 불일치, 결혼생활의 결정권, 문화수용, 가사의 분업, 그리고 의사소통의 변수와 관련하여 재미 교포 기혼자들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가 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 설 1 : 문화 수용의 수준이 재미교포 기혼자들의 결혼 만족에 긍정적으로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 설 2 : 미국내의 거주년도가 오래일수록 재미교포 기혼자들의 결혼 만족의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 설 3 : 교육과 직업의 상태가 불일치 할수록 재미교포 기혼자들의 결혼 만족이 낮을 것이다.

가 설 4 : 재미 교포 기혼자들의 수입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을것이다.

가 설 5 : 재미 교포 기혼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을것이다.

가 설 6 : 결혼생활의 결정권이 결혼만족의 수준과 상호관련될 것이다. 즉, 재미교포 기혼자들에게 있어서 결정권에 대한 남편 지배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의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 설 7 : 본 연구자는 가사의 분업과 관련하여 두 개의 다른 가설을 세웠다. 재미 교포부인들에 있어서 남편이 가사를 공유하면 할수록 부인들의 결혼 만족이 높을 것이다. 재미 교포 남편들에게 있어서, 부인이 가사의 일을 더

많이 할 수록 결혼만족이 높을 것이다.

가 설 8 : 재미교포 배우자들에게 있어서 의사소통 문제가 많을수록 결혼만족이 낮을 것이다.

3. 조사방법론

1) 자료수집방법.

400부의 설문지가 Snowball 표본 절차를 통하여 미국내의 23개 도시에 살고 있는 기혼 교포들에게 배부되었다. 32명의 조사 보조자들이 설문지를 그들의 친구나 친척들에게 우송하였으며, 설문지들은 조사자가 미리 지불한 우편봉투와 함께 조사자에게 직접 되돌아왔다. 400부 중 30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76%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2) 조사 도구의 설정

종속 변수인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oach, Frazier 와 Bowden (1981)이 만든 "Marital Satisfaction Scale" 이 사용되어졌다. 문화수용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Marin, Sabogal, Marin, Otero - Sabogal 과 Perez - Stable (1987) 이 개발한 "Short Acculturation Scale" 이 사용되어졌으며, 의사결정권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Blood 와 Wolfe (1960) 가 만든 "Decision Power Index"가 이용되었다.

또 본 조사자는 가사분담을 측정하기 위해서 Blood 와 Wolfe (1960)의 "Task Participation Index" 와 의사소통문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deTurck 과 Miller (1986)의 "Conjugal Understanding Measure"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도구를 위하여 본 조사자는 25개항의 설문지를 만들었으며, 이 도구의 질문 내용에는 연령, 성별, 종교, 결혼형태, 교육적인 배경, 수입, 미국내의 체류 연도수, 직업 및 고용상태 등에 관련된 질문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도구의 전반적인 적절성이 미국내에 있는 3명의 사회사업학과 교수와 2명의 사회사업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사업가에 의하여 표면 타당도(face-validity)가 검증되었다. 5명의 전문가들은 22개의 질문항목에 대한 적절함을 나타냈다.

단 연령과 성별 및 종교에 관한 항목은 타당도 테스트에서 제외하였다.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도구의 항목 중 단지 3개의 항목에 대하여 신뢰도 테스트를 하였다. 이러한 3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에 계실때 귀하의 생활 수준은?"

(2) "미국에 있어서 현재 귀하의 생활 수준은?" 그리고 (3) "귀하의 현재 직업은 귀하가 받은 (한국이나 혹은 미국에서) 교육의 수준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Pilot study 가 20명의 재미교포 기혼자(10명 남편과 10명 부인)들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테스트가 실시되어진 후 한달 후에 똑같은 기혼자들에 의하여 재테스트 되었다.

항목 (1), (2), 그리고 (3)에 대한 상관 관계는 각각 .75 , .93 그리고 .90 이었다. 신뢰도 테스트는 특히, 항목(2)와 (3)에 대하여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표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학과 종속 변수인 결혼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인 문화수용의 수준, 미국내의 체류 연도수, 교육, 수입, 가사분담, 결정권, 신분 불일치, 의사소통문제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4. 조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개인 배경 및 특성

조사 대상 응답자 중 147명이 남자(48.4%) 그리고 157명이 여자(51.6%)였다. 응답자 중 완벽히 답한 설문지는 남자가 115명이었으며, 여자는 83명이었다. 특히, 많은 여성 응답자가 수입 (N=35, 15.9%), 신분 불일치 (N=21, 13.4%), 가사분담(N=14, 15.9%) 및 결혼생활의 결정권 (N=20, 12.7%)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다. 한 편, 남성응답자 중 가사분담(N=14, 9.5%) 과 결혼생활의 결정권(N=12, 8.2%)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여자의 평균 연령은 40세 남자는 42세였다. 종교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기독교인 (N=230, 75.7%)이었고, 천주교인이 13.2%(N=40)를 차지하였다. 불교인은 단지 2%(N=6)였고 나머지 (N=19, 6.3%)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은 전체 대상자 중 72%(N=219)가 대학 이상을 졸업하였으며, 성별로 나누어 봤을 때 남자가 82% 여자가 62%의 분포도를 나타냈다. 조사 대상자의 현재 거주지를 살펴보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Los Angeles New York City, Chicago 로 응답자 전체의 46.1% (N=140)를 차지 하였다.

미국내 거주 년도는 수개월에서 부터 39년까지 분포되었다. 평균거주년도는 11년이었고, 응답자의 27%(N=82)가 5년 미만 동안 미국에 거주하였고 54.1% (N=164)가 6년에서 15년 거주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취업 상태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60.9%(N=185)가 완전고용, 19.9%(N=60)가 부분고용되었다. 남녀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자의 93.9%(N=138), 여자의 76.7%(N=107)가 완전 또는 부분고용이 되었다.

미국과 한국에서의 직업을 살펴보았을때, 응답자의 한국에 있을때의 직업 중 응답자중 단지 2%(N=6)만이 노동자였다고 응답한 반면에 현재 미국에서 응답자의 16.1%(N=49)가 노동자로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8.2%(N=25)가 한국에서 개인사업을 한 반면에 미국내에서는 17.4%(N=53)가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년 수입은 개인과 가족별 수준으로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개인별 년수입은 남자가 평균 \$ 34,241 여자가 \$ 23,110 이었으며, 두 집단의 평균 년수입은 \$ 29,157 이었다. 가족 년수입을 볼 때, 응답자의 48.7%(N=148)가 \$ 40,000 이상이었으며, 남자 응답자의 평균 가족 수입은 \$ 43,439 여자는 \$ 47,671 이었다. 두 집단의 평균 가족 년수입은 \$ 45,592 를 나타내었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과 현재 직업을 비교한 신분 불일치를 살펴 보았을 때 응답자의 43.7%(N=125)가 그들의 직업이 그들이 받은 교육에 상응한다고 대답하였으며 14.5%(N=44)가 “모르겠다”라고, 36.2%(N=110)가 “맞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맞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36.2%중, 남자가 42%(N=63), 여자가 30%(N=47) 응답하였다.

문화수용도에 있어서, 응답자의 73%(N=222)가 영어보다는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도 약간 더 문화수용도에서 높았다. (2.03 대 1.79) 결혼년도 수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4%(N=225)가 최소한 6년 이상을 살았고, 26%가 (N=78) 20년 이상을 현재 배우자와 살았다고 응답하였다.

가사 분담에 있어서는, 남자의 많은 응답자들 (N=78, 53.0%)이 그들의 부인과 가사의 일을 분담하였다 라고 보고한 반면에 여자 응답자의 58.4% (N=87)는 그들이 남편보다 가사의 일을 많이 하였다 라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가사 분담에 있어서 남녀간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생활의 결정권에 있어서 응답자의 54%(N=164)가 배우자와 결정권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결정권에 있어서 불평등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이 여자가 더 많은 결정을 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응답자의 6.9%(N=21)가 그들이 배우자와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5%(N=108)가 “모르겠다”에 50.5%(N=154)가 배우자와 별문제 없다라고 하였다.

결혼생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참고인으로서 응답자의 대부분 (N=253, 83.4%)은 그들 스스로 또는 배우자와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단지 응답자의 16%(N=48)만이다 큰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데, 남자의 응답자에 비교하여 많은 여자의 응답자가 친구와 이야기 했다. (2.0%대 12.7%)

흥미롭게도 어떤 응답자도 그들이 결혼생활에 문제 있을 때 상담가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약 5%(N=15)만이 상담가로서 목사나 신부를 이용하였다.

결혼 만족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N=208, 68.3%)가 결혼에 만족한다 라고 응답 하였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분명하였다. 남자 응답자의 75.4%(N=111)가 그들의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고 보고한 반면에 여자 응답자는 61.8%(N=97)가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

2) 결혼 만족도에 관련된 변수의 분석

(1) 남자 결혼 만족도의 분석

중다 회귀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문화수용과 의사소통문제의 변수에 관련된 t 테스트

만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다고 나타났다. ($P < .05$) 문화수용에 대한 R^2 는 .034 였으며, 따라서 문화수용의 수준이 남편의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관련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의 장벽이 재미교포 남편들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다라고 해석되어진다.

의사소통문제에 대한 R^2 는 164였으며, 이 변수는 남편 결혼 만족도에 가장 강력한 설명을 해주는 변수였다. 따라서, “재미교포 기혼 남자들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많을수록 결혼만족이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재미교포 기혼 남자들에게 있어서 결혼만족도의 19.8%가 의사소통문제와 문화수용의 변수에 의하여 설명되어진다.

(2) 여자 결혼만족도의 분석

의사소통문제와 결혼생활의 결정권이 재미교포 기혼여자들의 결혼만족도와 중요하게 관련되었다. 결정권에 대한 t 값은 $P < .05$ 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다. 결정권에 대한 변수 ($t = -1.99$)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재미교포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생활의 결정권에 대한 남편 지배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부인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이 변수에 대한 R^2 는 .03 이었다.

의사소통문제에 대한 t 값은 6.62였으며 R^2 는 .372였다. 의사소통 문제의 변수는 결혼만족도와 상당히 중요하게 관련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미교포 부인들에게 있어서 의사소통문제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결론적으로, 재미교포부인들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중다 회귀분석은 의사소통문제가 결혼만족도의 편차를 설명하여 주는 제 1의 중요변수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결정권은 재미교포 부인들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제 2의 중요한 변수이다.

전체적으로, 이 두 변수가 재미교포 부인들의 결혼만족도의 40%를 설명하였다. 재미교포 남편과 부인들 모두에게 있어서, 의사소통문제가 결혼만족도의 편차를 설명하여 주는 제일 중요한 변수였다.

5. 결 론

1) 연구의 한계성

본 연구에서 비확률 표출(nonprobability sampling)방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표본이 재미교포 기혼자들의 대표성을 나타내는데 한계성이 있다. 이 연구는 특히, 여자 응답자들에 있어 높은율의 missing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많은 응답자들이 그들의 결혼생활에 만족을 한다고 응답하여 이 표본 집단이 결혼생활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로 번역되어진 기존의 측정도구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부부결혼 만족도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2) 미래 조사에 대한 의미.

본 연구의 발견은 미래조사를 위하여 몇가지의 의미를 제안한다. 본 조사의 주요한 발견 중의 하나는 재미교포 기혼자들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결혼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미래 조사자들은 이 요소를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기를 바란다. 예로써, 미래 연구는 재미교포 부부들의 결혼문제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패턴사이 관계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hort Acculturation Scale"이 신뢰할만한 측정도구 일지라도 재미교포 부인들에게 충분한 측정도구가 아닐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 연구는 문화수용의 개념에 문화적인 스트레스, 문화적인 갈등, 부부관계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등의 변수를 포함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직업을 갖고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래의 조사는 재미교포 배우자들에게 있어서 직업을 갖고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조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3) 사회 사업 실천에 대한 의미

비록 본 연구가 성격상 임상적이지는 않지만 본 연구의 발견이 아시아인 미국 배우자들과의 임상실험에 의미를 가질수 있다고 본다. 예로써,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절충과 결정권에 있어서 부부의 기술을 고양시켜야 할 중요성을 제안한다. 따라서, 재미교포 부부들은 그들의 배우자와의 결혼관계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부부의 의사소통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만약 재미교포 기혼자들이 결혼생활을 외부로 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그들은 다른사람들 보다도 목사나 신부들에게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따라서, 종교단체와 관련된 사회사업가들은 재미교포 부부들을 위한 결혼상담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